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총장 황원찬 박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http://www.dtu.ac.kr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Westminster Graduate School Theology
이사장 한동숙 목사 총장 정인찬 목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 201-11 (중동 38-1)
Tel : 031)270-6000 Fax : 031)270-6060

이사장 : 조강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91호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순복음춘천교회, 3,000여명의 논산육군훈련병 진중침례

대한민국 최대의 논산육군신병훈련소 장병들의 아멘의 함성

청년선교의 현장, 거룩한 사명실천의 현장, 다음세대 선교의 살아있는 심장인 연무대군인교회가 있는 곳이다. 다음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희망인 연무대군인교회 출석하는 훈련병의 80%는 군대와서 처음교회를 온 초신자이며,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청년장병들이 다시 돌아오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훈련병들이 연무대군인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간증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힘든 훈련기간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연무대군인교회에서 1990년 진중세례식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의 진중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약 7만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는 세계최대의 선교현장이다.

이번 제471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여 지난 25일(토) 오후 2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열렸다.

장병침례예식 1부에서 이요한 목사(입소대교회)의 침례교리문답이 있었고, 2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찬양단의 찬양인도 후 김종천 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의 인도, 함형순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위원장)의 기도,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의 설교, 이상철 목사(기하성군선교위원장,순복음경동교회 담임)의 축사, 우상종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와 최순녀 권사(순복음춘천교회 총여선교회장)의 축하 기념품 전달, 서상국 안수집사(육군훈련소장)가 이수형 목사에게 기념액자 증정, 오황동 목사(기하성 강원지방증경회장,원주순복음중앙교회)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수형 목사는 창세기 3장 15~21절 말씀으로 "신앙고백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신앙고백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고백할 수 없으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고백의 축복으로 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3부로 열린 침례예식은 김종천 목사(연무대 군인교회)의 침례서약,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침례기도, 김종천 목사의 침례공포 후 침례식장으로 이동해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를 비롯한 40여명의 집례위원(기하성 목회자)과 40여명의 장로들(순복음춘천교회)이 협력하여 침례예식을 실시했다. 토요일과 주일의 침례예식를 통하여 훈련병 3천여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국민 MC 유재석 영입한 FNC 한성호 대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기획사를 하고 싶어요."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이하 CTS)의 대표 간증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에 최근 국민 MC 유재석을 영입하여 장안의 화제가 된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가 출연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간증을 나눈다.

FT아일랜드, 씨엔블루, AOA, 정우, 이국주 등 정형돈에 이어 얼마 전 국민 MC 유재석! 김용만, 노홍철까지 영입하며 설립 7년 만에 국내 3대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로 급성장 시킨 한성호 대표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해 신앙간증을 쏟아 냈다.

녹음과 마스터링 작업까지 마친 〈To Heaven〉을 당시 신인이었던 조성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던 가수 시절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술로 20대를 보냈던 청년 시절 어머니의 눈물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또 2006년 당시 R&B가 주류였던 가요계에 생소한 밴드음악으로 돌풍을 일으킨 FT아일랜드의 탄생비화!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30억 원의 빚을 지며 다시 좌절을 경험했다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에 이홍기와 정용화가 동시에 캐스팅되면서 기적적으로 재기하게 된 한성호 대표의 리얼 성공스토리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공개된다.

"내 성공의 비결은 새벽기도"

세상 문화 한 복판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새벽제단을 쌓는 그의 신앙 이야기와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의 특별한 비전!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의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간증은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오는 8월 3일 오전 9시(재방송 4일 오후 2시) 에 방영된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7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언론들 북에 떠는 이유
사장들이 정조를 바쳤기 때문

'항복 문서에 서명한 댓가로 마약 및 성접대들을 받았다 한다

2000년 6.15 망국 선언이 있는 지 56일 후인 8월 11일, 박지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직함으로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46개 사장단을 북으로 데려갔다. 구실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서로 양 체제를 비난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언론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자는 남북 언론 합의문에 서명들을 했다. 이른바 46개 언론사들의 항복 문서다. 항복 문서에 서명한 댓가로 공개하기에는 거북한 대접들을 당당히 받은 모양이다.

그 후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김정일에게 꼭꼭 위원장이라는 존칭을 사용해 왔다. 어떤 언론사 사장은 모임의 연사로 초청되어 김정일을 만난 소감을 발표했다. "김정일은 참으로 통이 큰 인물이다", "김정일은 유머와 위트가 있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정일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언론의 대 김정일 항복문서 내용

1)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2)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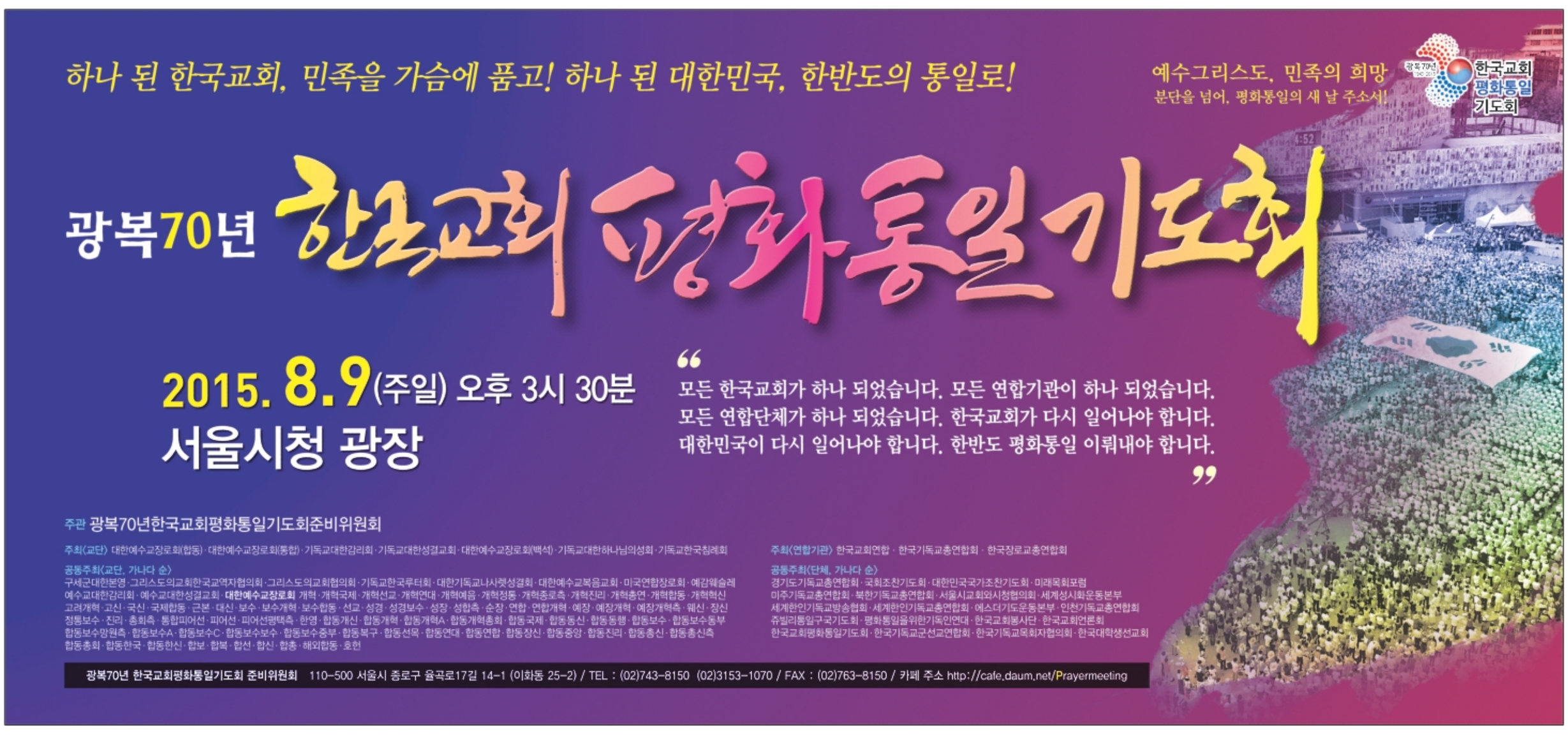
3)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 보도 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쪽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이에 김대중은 2000년 11월 24일, 언론노조를 설립하여 대부분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자 18만여 명을 가입시켰고, 이 조직은 그야말로 언론을 공산화 시키는 빨갱이 공룡조직으로 행세해오고 있다.

500만야전군의 공격방법

이러한 언론노조를 깨기에는 박근혜는 너무 작다. 그래서 박근혜는 거기에 기생해 왔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에 "그래도 박정희 딸인데..."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건다. 이러한 기대를 거는 한 그 시간은 낭비된다. 이런 시간은 그냥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갉아 먹히는 시간이다.



예장개혁, 전국장로회 연합수련회 개최

제18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이상백 장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국장로회(회장 이희덕 장로)가 7월17일 오후 5시 경기도 이천시 덕평 RUTC에서 전국장로회연합수련회를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이희덕 장로는" 이번 수련회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되고, 천명(天命)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00여명의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는 회장 이희덕 장로의 사회로 개회가 되었으며, 장로 부총회장 허진국 장로가 기도했다.

설교는 개혁총회장 서금석 목사가 '신앙의 모델' 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서 총회장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검증특위가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을 재천명' 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란 사실을 강조하며 개혁교단은 전도하는 교단으로 장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앙 모델을 본 받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장로수련회는 18일(토)까지 류광수 목사가 '세가지 방향의 중직자 사명' 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비밀, 조직, 사명 등에 대해 3강의를 한다. 류광수 목사는 1강에서"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기도비밀을 알아야 한다. 세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보이고 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셋째, 전도의 비밀, 앞서 말한대로 체질이 되면 가는 곳 마다 머문 곳 마다, 만나는 사람, 사건 모두가 전도의 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 할 필요 없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성경의 이드로 장로, 기생라합, 오바댜, 가이오 등과 같은 중직자가 되시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쳤다.

1강 이후 제 18회기 전국장로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회)8회기 신임 회장에 이상백 장로(인천검단교회) 부회장 서동신 장로(울산 임마누엘 교회) 선임 되었다. 전임 이희덕 장로가 신임 이상백 회장에게 장로회기를 전달함으로써 공식 회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상백 장로는 화는 자신의 인생역경을 돌아보며 북음안에서 영광스런 자리에 3천여 장로를 대표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 또한 18일에는 특별초청 강사로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가 '한국교회의 이단문제' 에 대해 강의에 나섰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연지동 총회사무실에서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총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동권 목사)를 열고 제100회기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직전 총회장 김송수 목사, 부위원장에 최정웅 목사가 선임됨에 따라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100회기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 김운복 목사가 단독후보로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총회장에 당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총회장 후보는 김기곤 목사(아멘교회), 이화웅 목사(산돌교회)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구 전도측 출신 A 목사, B 목사도 부총회장 출마설이 높기는 하지만 과연 후보로 등록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연목회자들 신천지의 반사회적 폐륜행각 고발시위

신천지에 빠진 청년구하려다 집단폭행당한 목사가 병원에 입원 중



강원도 강릉에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을 구출하려다 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목사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강릉 기독교연합회(이하-강기연) 목회자들이 26일 오후 3시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고발하는 규탄 시위를 가졌다.

가출해 부모와 연락 두절된 청년 구하려다…

지난 11일 강릉시 모 펜션 인근에서 신천지에 빠진 20대 청년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5월 신천지에 빠져 가출을 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두절됐던 청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가 신천지에 빠지자 평범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깨졌고, 부모는 생계를 내던지고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

부모는 다른 피해 가족들과 함께 신천지 교육센터 등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갖고 규탄 시위를 계속 했다. 보다 못한 경찰이 중재하에 아들을 부모의 품에 돌려보낸 것도 잠시.

강릉 부연동의 한 펜션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며 쉼을 갖고 대화와 상담을 이어갔지만 개종 문제로 인한 언쟁은 격화됐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 펜션을 빠져나가 신천지 측에 연락을 취했다.

이날 오후, 그간 청년을 잘 알고 있던 A 목사는 그가 다시 신천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천지 신도 수십명과 대치했다. 신천지 측이 청년을 봉고차량을 태우고 가는 것을 막는 도중 신도들의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고, A 목사는 이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신천지로 돌아간 그는 부모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부모는"어떻게 부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 수 개월 동안 집과 연락을 끊고 잘 다니던 학교까지 포기했는데 부모가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비참한 심정을 전했다.

부모를 경찰에 고소해 관계를 단절케 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사를 폭행, 협박하는 등 신천지의 반사회적 패륜 행위가 드러나자, 강릉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은 강릉 시내에서 신천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연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목회자들은"신천지는 청년 미래를 고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가출, 이혼, 자살 등 문제가 속출하는 거짓말 집단이므로 당장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목사 폭행 건에 대해"A 목사 본인이 먼저 승합차 앞에 선 사람들을 제치고 무리하게 돌파하려다 막혀 뒤로 넘어진"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기총 내방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수) 오후 2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여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지덕 목사,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 공동회장 박중선 목사, 엄기호 목사 등이 배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한기총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께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본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국민들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인사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과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경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헌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개화기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기독교의 영향과 역할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연평해전을 관람한 일을 언급하며 "6.25전쟁에 대한 정의는 북한이 남침해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연평해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면담을 마치면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조강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성명서〉

기독교를 폄훼한 김광진 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 안은 거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충격과 함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시정잡배가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그 같은 망발을 한 당사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한국교회 1천만 성도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모독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독교를 마치 미신 사교집단으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며,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당사자의 왜곡된 종교관을 탓하기보다 무지로 교묘히 포장된 종교편향적 사고의 위험한 실체를 마주보며, 이런 인식을 부끄럼 없이 밖으로 당당히 드러내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준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당은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 아래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기독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이며, 스스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수준을 깎아내린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우리는 1천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영성을 매도하고 모독한 당사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서 심판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 7.29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W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Geheral Assembly of Presbyerian church in Korea



이영풍 목사 신언창 목사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

본 총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총회 및 노회, 개 ·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타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숭락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에녹부흥신학원



htt://kiea.onmam.com

중식 무료 제공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 오후 2시(학술원)
☞ 장소 :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숭의1동 441-45)
☞ 문희 :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모집
수업일 : 매주 금.토 오전 10:00 부터~
몸찬양(무용, 국악, 찬양) 매주(목) 오전 10:00~

한국교회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 세부계획 발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 기자간담회 열어



2015년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이하 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감리회관 16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9일(주일)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정된 통일기도회의 의미와 목적 등을 설명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통일기도회는 예장 합동·통합·백석,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을 비롯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주최하고, 이 밖에 국내 주요 교단 및 단체들이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위 측은 이번 기도회에 대해"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74년 엑스플로74대회, 1984년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회, 2007년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2010년 한국교회8.15대성회의 의미를 담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감동, 결단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광복 70주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 로 정하고, 감사와 회개·용서, 사랑, 생명, 평화, 통일, 희망을 키워드로 삼았다. 아울러 표어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뤄내야 합니다!' 라고 했다. 특히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대장, 새에덴교회)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는 한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이 기를 들고 입장식을 갖고 애국가 제창, 장충식 장로(새에덴교회, 단국대 이사장 및 명예총장)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이어 박현숙 권사(새에덴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의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특별찬양이 이었다.

설교를,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에서 한 명씩 '7분 메시지' 를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성을 다해 드려진 헌금은 대북 지원을 위해 쓰며, 이어령 박사가 젊은이들의 멘토로서 3분 가량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행사 말미에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총신대와 장신대 등 7개 주요 신학대 총장들이 작성에 참여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는"무엇보다 대형교회 중심의 집회에서 벗어나, 많은 지역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과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의 의미를 살려 8월 9~15일 사이에 지방 70개 교회와 해외 70개 교회가 현지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평화통일 공동기도운동 기간으로 삼았으며, 광복절 당일 새벽 5시 30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특별새벽기도회' 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재 목사(기감 감독회장)는"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로 모여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평화통일을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도"통일 앞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돼야 할 것"이라며"이번 통일기도회를 통해 먼저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 통일을 국민 전체의 관심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무용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는'성공적인 기도회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자' 했고, 정영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이번 통일기도회가 광복 70년을 맞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고 민족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이날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지금까지 크고 작은 집회들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일기도회 역시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큰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며"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호소했다.

새에덴교회, 6·25 UN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

미국과 콜롬비아, 캐나다 참전용사 초청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가 한국전 정전 62주년 기념 UN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 행사와 기념예배를 드렸다.새에덴교회는 26일 오후 이 교회 1층 홀에서 미국과 콜롬비아에서 온 참전용사 50명과 국내 참전용사 200여명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노고를 치하했다. 환영 만찬에는 가수 남진가 히트곡 '저 푸른 초원 위에' 로 시작하는 '님과 함께' 와 50년 전 유행했던 영어 팝송을 불러 참전용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테너 박주옥 목사는 '그리운 금강산' 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보은예배와 기념식과 이철휘 장로(예비역 육군

용사를 만났고, 그가 죽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듣고 그해 9월에 해외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방의 땅에 와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축복과 번영을 누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참전용사들에게 보은의 뜻을 표했다. 이어진 기념식은 김종대 장로(참전용사초청행사준비위원장, 예비역 해군제독)가 인사말씀을, 정창민 용인시장은 환영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참전용사들에게 99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미국 다선의원인 찰스 랭글 하원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참전용사기도한 그는 새에에덴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황진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이철우 장로는 격려사에서 "우리 국군과 UN군은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1129일 간에 걸쳐 적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 국군 장병 13만 7천여명, 유엔군 약 5만 8천여명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국토가 폐허로 바뀌었다."며 전쟁의 참혹상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도록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려주신 여러 영웅들에게 무한한 경의와 최고의 찬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전인범 야전 사령관에 이어 김영진 장로(전 농림주장관), 박희모 회장(6·25참전유공자 회장),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직전 회장)가 각각 축사했다. 기념행사에서 미국과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1953년 올드베릴전투에서 좀 햄필 중위(예비역 미국 육군 준장)와 부사관이 꿈같은 만남으로 감격의 악수를 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존 햄필 장군(미국 육군 소장)은 답사를 통해 새에덴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서광수 장로(새에덴교회, 예수대학교 총장)의 광고에 이어 임우길 목사(용기총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새에댄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해외 참전용사들을 국내에 초청해 보은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그동안 500여명의 해외참전용사를 초청했고, 미국을 방문해 1500명에게 감사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해외 참전용사들은 새에덴교회에서 환영행사 외에도 국립현충원과 판문점, 평택 2함대 등을 방문 둘러보는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새에덴교회와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의 주관하고, 보훈처와 6·25 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후원했다.

총회운영위원회, 고려측과의 통합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

대구성동교회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통합추진위원회의 보고 받아



7월 21일(화) 오후 2시 대구 성동교회당(정용달 담임목사)에서 열린 제64-4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통과 시킨 뒤 가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는 제64-2차 총회운영위원회(2015년 3월 27일 소집)에서 허락을 받아 조직되었다. 총회장 김철봉 목사, 부총회장 신상현 목사, 직전총회장 주준태 목사, 서기 신수인 목사,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 임원회 선정 배굉호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려측과 접촉을 하면서 결국 통합합의문을 작성하였고 그것을 운영위원회가 받아들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통합합의문이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 통합합의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선교 130여년의 역사적인 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고자 한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76년 제26회 총회사기에 "신자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 양 총회의 통합은 성경적으로나 한국교회사적으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2015년 9월에 개회되는 제 65회 총회 시에 통합을 하기로 한다.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회기, 교회역사, 신학교졸업기수 등)는 병합한다.

2.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노회로 편성한다.

3. 양 총회 소속의 목사, 선교사, 교역자의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제도 혜택 및 계속 수학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4. 고려신학교 신학원(M.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고신대학교의 병설과정으로 하여 총회 직영으로 한다.

5.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 통합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한국 교회의 하나됨과 조국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5년 7월 14일

고신총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철봉 목사, 위원 주준태 목사, 신상현 목사, 배굉호 목사, 신수인 목사, 구자우 목사, 최수우 장로

고려총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천 환 목사, 위원 양문화 목사, 박창환 목사, 이무영 목사, 이성용 목사, 오성재 목사, 홍종권 장로

현재 고려총회는 8개 노회와 2개의 해외노회(미주, 유럽)로 전체 교회수는 271개 인데, 국내 교회는 171개, 해외교회 14개, 선교지교회 86개, 목사 222명, 선교사 16명, 시무장로 120명, 협동장로 30명 교세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7월~8월 집회일정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 7월 20일(월)~7월 22일(수)까지
  강원도 정선 임계 여량교회 (임광욱 목사시무)
  전화 : 010-7711-4167
- 7월 27일(월)~7월 29일(수)
  충주금식기도원(고충만 목사시무)
  전화 : 043-853-3990
- 8월 3일(월)~8월 6일(목)
  운봉산기도원(임상화 수도사)
  전화 : 041-557-3229
- 8월 10일(월)~8월 13일(목)
  철원 성소기도원(원장 박정연 목사)
  전화 : 033-458-5988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바누아투 론즈데일 대통령,
"한국교회의 태풍피해 구호성원에 감사"

한기총 국제위원회 파송 황상배 목사, 대통령 조찬기도회 인도하고 면담해





바누아투공화국 볼드윈 론즈데일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태풍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한 황상배 목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한기총과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함께 했다.

바누아투 론즈데일 대통령(사진)은 지난 7월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제위원회가 태풍피해 구호성금 1억원과 생필품 및 의약품등 15만점을 바누아투 장로교총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접하고 현지에서 성금을 전달한 황상배 목사(개혁, 임마누엘교회)를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기총과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론즈데일 대통령은 황상배 목사에게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해 황상배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했다.

황상배 목사는 설교에서 시편18편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이 축복의 복음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자"고 강조한 후에 20여명의 대통령 집무실 직원들에게 축도했다. 론즈데일 대통령은 성공회 출신 목사로서 매일 아침 조찬기도회를 갖고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배 후 론즈데일 대통령을 면담한 황상배 목사는 바누아투 장로교 총회와 선교교류협약을 체결한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의 복음전도운동과 후대를 위한 복음운동인 렘넌트운동을 소개하자 론즈데일 대통령은 "한국의 복음전도운동이 바누아투에도 일어나길 원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원한다. 특히 한국의 렘넌트운동을 직접보고 싶다."라고 해 황상배 목사는 금년 8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렘넌트대회에 초청했다. 한국 방문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론즈데일 대통령은 "8월에 한국초청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통일교인 것을 알고 허락을 취소했다."해 바누아투공화국이 복음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영목회 한국중앙회창립, 대표회장에 엄기호 목사 추대

고향 복음화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다하겠다



영목회 한국중앙회는 앞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 5개 광역시·도의 복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후진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영목회 한국중앙회는 이날 초대 대표회장에 엄기호(성령교회), 총재에 피종진(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사무총장에 황세한(인천열방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조만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임원 취임예배와 대형집회도 개최한다고 했다.

행사는 1부 창립예배, 2부 추대장 및 임명장 수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목회 한국중앙회 고문 최병두 상신교회 원로목사는 엄 대표회장과 피 총재, 황 사무총장 등에게 추대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엄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군림하기 위해 대표회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고향 복음화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 총재는 환영사에서 "교파를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영목회 한국중앙회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 큰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영남권 복음화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남권 개신교인 비율은 부산 10.4%, 대구 10.4%, 울산 9.5%, 경남 8.5%, 경북 11.6% 등으로 수도권인 서울(22.8%), 인천(22.4%), 경기도(21.8%)와 호남권인 광주(19.7%), 전북(26.3%), 전남(2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표고문에 추대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고향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겔 37:1~10)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지난 50여년 동안 지구 120바퀴를 돌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전도했지만 일가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고향 땅 경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 성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놀라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고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남권 복음화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욱 대표 '대한민국신창조인대상' 수상

신연욱 대표, "미래의 국가, 미래의 아이들, 미래의 한국경제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수상자는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오제세, 과천시장 신계용,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개그맨 남보원 등 수상

2015년 제3회 대한민국신창조인 대상 시상식 및 신창조인 인증식이 7월 14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미래경영포럼 사무총장 신연욱 대표가 2015년 대한민국신창조인대상 미래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신연욱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미래경영부문을 수상했는데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더욱 분발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최대의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미래의 국가, 미래의 아이들, 미래의 한국경제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연욱 대표는 스포츠미션 대표, 새한일보 편집인,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운영위원장,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상임총무, 나부터국민운동본부 상임총무,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운영위원장, 2015한마음통일염원대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스포츠위원, 한국스포츠재단 운영위원장 등의 직을 맞고 있으며, 대한민국건국회 자문위원, 좋은세상국민운동본부 홍보위원장, 하나일보 편집국장, 세계스포츠선교회 홍보위원장 등의 직을 거쳤다.

한편 이날 수상자는 신연욱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오제세, 과천시장 신계용,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개그맨 남보원, ㈜바찌화장품 대표이사 최일규, KYK김영귀환원수(주) 대표이사 김영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이사장 이선구 등이 수상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윤현 사무총장은"21세기를 더욱더 밝혀줄 창조적이고 선구자적인 퍼스트 무버(The First Mover)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신창조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2월 13일에 제1회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을 실시하고 올해 3회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은기 대회장은 "국민의 성공이 곧 나라의 성공이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행복한 사회를 이루자."고 말했다.

광복 70주년, 분단70년을 맞아 북한선교의 방향성 제시

'통일의 문, 북한선교와 탈북민사역'을 위한 컨퍼런스 열려



2015년 광복 70주년과 분단70년을 맞으며 한국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8월 14일 오전10시부터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종교교회에서 '통일의 문, 북한선교와 탈북민사역'을 주제로 북한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컨퍼런스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금번 행사는 한국교회 미래와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과 북한 및 통일 선교 실무 사역자들로 구성된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그리고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단체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공동으로 북한선교 사역현장을 진단하고, 복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교회에 북한선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개회예배는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의 사회와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의 기도, 이철신 목사(영락교회)의 설교와 차현회 목사(세계웨슬리선교회)의 축도로 진행된다.

1부 발제와 토론은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가 좌장으로, 주발제에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오성훈 회장이 나서 북한선교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다. 북한선교 현장 사역자들과 한국교회 목회현장의 소리를 듣고, 진단과 대안 중심으로 논의 하게 된다.

2부 발제와 토론은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좌장으로,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목사가 탈북자 사역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3부는 통일 및 구국기도회의 전문성을 가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서 기도합주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청인 이윤재 대표(미래목회포럼)는 "광복70주년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국민통합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한의 분단70년을 극복하지 않고서 광복의 완성은 불가능하므로, 남북이 뜻을 함께 하여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복70주년을 맞아 북한선교를 점검하고 미래를 제시하며 가지는 뜻깊은 행사에 한국교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요청된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생 모집

외국인을 위한 석사, 박사 학위 특별 과정

1. 모집학과
1) 사회복지경영학 석사(M.A) 2년(4학기) 00명
2) 철학박사(Ph.D/사회복지경영) 3년(6학기) 0명

2. 응시자격
1) 석사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 정자.
2) 박사과정 : 석사학위 소지자로 동일학과 전공자 (동일학과가 아닐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으로 선수과목 이수하면 가능함)

3. 모집 및 수업 안내
1) 모집안내 : 1차 2015년 8월22일까지
2) 수업안내 : 9월 둘째 주 개강 15주 수업

4. 특전
담당교수의 철저한 관리아래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5. 문의 : 입학처 (031-470-3322, 010-6512-6692)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코칭학 석사 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1) 코칭학 석사(M.A) 2학기 3학기 00명

2. 응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로 1학기 이상 수업을 마쳤거나 동등학력 인정자.

3. 모집 및 수업 안내
1) 모집안내 : 2차 2015년 8월14일까지
2) 수업안내 : 9월 첫째 주 개강 15주 수업

4. 특전
담당교수의 철저한 관리아래 코칭분야의 각종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5. 문의 : 입학처 (031-470-3322, 010-8812-4951)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 · 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한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전화금융사기, 누리망 도박 근절에 나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화금융사기, 누리망 도박 등을 범행 중이던 68명(전화금융사기 사범 32명, 누리망 도박 사범 36명)을 태국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및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고, 그 중 25명을 국내로 송환하여 17명을 구속하고(8명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43명은 송환중이다.

전화금융사기와 누리망 도박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그간 국내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작전은 해외 근거지를 직접 타격한데 그 의미가 크며,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국외 검거작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전화금융사기 사범은 총 32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콘도 등을 임대하여 누리망 전화, 전산기(컴퓨터) 등이 완비된 전화상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속여 뺏는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망 도박 사범은 총 3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태국 내 고급 숙박시설에서 배팅금 명목으로 입금 받는 등 누리망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자연스레 활동무대가 태국 등 동남아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태국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외부 노출 우려가 없는 콘도 객실 등 숙박시설에서 발달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범죄를 할 수 있었다.

우리 국에 적발되더라도 중개인 등 현지 불순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형을 선고받더라도 가·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으로 최장 3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과 누리망 도박 사범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전화상담실 담당, '인출관리책',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로 국내 인출책 검거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고, 누리망 도박도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현지 검거를 통한 근본적 단속이 절실했다.

경찰청 외사국사이버안전국 등은 국내 수사, 외국 경찰과 정보공유로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과 누리망 도박 운영 정황과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정보를 오랜 기간 수집하고, 태국에 있는 경찰주재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검거를 준비하였다.

지난 '15. 6. 1.부터 7.20.까지 약 50일간 태국 경찰은 한국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단속, 피의자 검거 및 전산기(컴퓨터)·책크기(노트북)·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우리 경찰도 2차례(1차 3명, 2차 4명)에 걸쳐 7명을 태국 현지에 파견, 합동 단속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범을 검거하고 국내 송환 및 처벌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 파견된 공조수사팀 임무 : ① 디지털증거물 확보 ② 증거물 분석 등 지원, 태국 경찰청 범죄진압국에서는 우리 측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활용한 단속과 파견팀 운용 등 체계적인 검거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 경찰 견학을 희망하고 교관을 요청하였다.

범죄진압국 작전사령관"토르삭"은"국제범죄에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과 태국 경찰의 공조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며, 태국 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일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작전기간 동안 참여한 한 태국 경찰관은"한국 경찰이 태국에 와서 태국 경찰과 협조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고한 공조체제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사경찰 역할에 대한 새로운 표본을 제시한 사례는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수사를 통해 해외 전화상담실 조직의 존재를 알더라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활용하고 외국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외국에서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동적 외사활동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또한 한국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체제와 정보기술(IT) 수사기법을 태국 경찰에 각인시켜, '현장에 강한 스마트 정보기술(IT) 경찰'이라는 치안한류를 구현하였으며 이에 태국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채널을 활용한 단속 및 첩보수집, 파견팀 운영과 디지털 포렌식 등에 감명, 한국 경찰 견학을 희망하고 교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잇따른 송환과 국내 수사 진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누리망 도박 사범을 압박한 결과, 외국에서는 범행을 저질러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려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이번 국제형사경찰기구 채널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및 누리망 도박 사범 검거는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이며, 대한민국 외사경찰 역할에 대한 새로운 표본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와 누리망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범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받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주도한 상선들의 신상정보를 파악,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선들은 태국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에 70인치 대형 텔레비전(TV)를 설치하여 게임을 즐기는 등 단속 경찰관들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호화 생활을 누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중앙 총회회관 매각 논란, 비대위 형성

피해비상대책위 구성 공동 소송 진행 움직임



사단법인 합동중앙(총회장 조갑문목사) 주교동 총회 회관 매각과 관련 모금과 출연금을 낸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불법 논란 기류를 본격 형성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합동중앙총회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애순목사)는 강서구 등촌 3동 소재 사)합동중앙 총회회관 앞에서 주교동 총회 회관 원상회복을 외치며 침묵시위를 진행 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교동 총회 회관은 6백 여명의 총회원들이 모금을 하고 출연금을 내 마련한 총유재산이다"면서 "3천만원 이상 출연금을 낸 설립 이사를 불법적으로 제명하는 등 그간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당시 사단법인이 아닌 합동중앙 총회가 주교동에 총회 회관을 매입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사단법인은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당시 모금과 출연금을 낸 분들이 5억원의 설립자금을 출현해 허가를 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합동중앙 조갑문 목사 등 일부 이사진과 임원진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악용해 재산보존과 상관없이 악용 불법적으로 매각했다"면서 "총유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과 함께 매각에 관해 투명성을 밝힐 것을 요구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불법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관계자 전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불법적으로 이사진을 해임한 건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에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주무관청에서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정관상 정상적이라는 유권해석을 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당시 모금과 출현기금을 낸 교회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피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합동중앙은 "그동안 분열 중심에 있던 주교동 총회회관은 서옥임 총회장 시절 서 총회장의 헌신과 교단산하 전국 교회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지게 됐다"면서 "총회 회관 매입 후 조갑문 총회장에 인수인계 되면서 4억원(은행대출 3억5천만원,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은평노회 대학원대학교 모금 1천 만원 등) 차입금까지 떠넘기게 됐다"면서 "결국 45회기 임원들은 매월 2백 만원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됐고 교단이 분열되면서 가중 됐다"고 밝혔다.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전북 경찰관서 및 금감원, 보험협회 워크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에서는7. 22(수) 김제시 금구면 소재 삼성생명 전주 연수소에서 홍성삼 전북청장, 도내 경찰서 지능팀장, 교통조사계장 등 40명,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등 9명,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 3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 주요 보험사 SIU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 최초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유관기관이 참석한 워크숍으로 주요 내용은 민·관 협업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수사역량 강화 등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성삼 전북청장은,경제여건 악화 및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지속 증가,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이 긴요함에 따라 보험사기 인지, 조사 등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 3.0정신을 구현하는 좋은 사례로 우리사회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경찰의 수사력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상호 융합하여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 관련 수사정보 교류, 현장 수사 인력 및 자료 분석 지원, 제도개선 등 보험범죄 척결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 관련 수사정보 교류, 현장 수사 인력 및 자료 분석 지원, 제도개선 등 보험범죄 척결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화성동부서장, 관내 오산고 '연평해전' 영화관람

화성동부경찰서(총경 박명수)는 7.23(목) 오산시 원동소재 '00박스'에서 오산고등학교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연평해전'을 관람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최근 흥행중인 연평해전을 관람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환기찬 학교생활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명수 화성동부서장은 "학교 폭력 근절과 더불어 확고한 국가관 정립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역군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영화 관람에 참석한 오산고등학교 3년 김00(女)은 영화 관람 후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눈물을 흘렸다.

관악경찰서 경목실과 경찰교회 리모델링 감사예배

서울관악경찰서 경목실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7월 22일 11시 관악경찰서 경목실과 경찰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경목실장 양정섭 목사의 인도아래 시편 23:1-3을 묵도하고 교경협의회공동회장 조준현 목사가 기도를, 교경협의회서기(은천제일교회) 최인광 목사가 성경 전도서4장 12절을 봉독하고, 경찰서 신우회원이 특별찬양에 이어 교경협의회대표회장(영진교회) 박규갑 목사는"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리더십을 가지고 전진하고 경찰교회와 경찰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기원" 했다. 또한 관악경찰서 유진규 서장의 인사말씀과 관악감리교회 송신웅 장로에게 리모델링에 수고하여 대표회장 박규갑 목사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은 후 관악경찰교회신우회장 오길용 집사가 광고를, 교경협의회상임회장 이정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이어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덕담을 나누었다.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11)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부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지난호 이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아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과 고난 받을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으므로 돌로 차이고, 발로 차이다가 결국은 주님과 같이 죽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에게 빛난 주석같이 되게 하시는 영광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시 93:3-4에서 높이 계신 주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들보다 더 강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는 나이야가라 폭포를 생각하시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야가라 폭포 바로 밑에까지 가보면 그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엄청난 소리와 웅장함에 압도되고 맙니다.

음성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능력이 많은 물소리 같이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발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촛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므로 우리가 마음을 복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면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가십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졌다." - 일곱 별은 일곱 금촛대 교회의 천사를 말한다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한국어번역 성경에는"금촛대 교회의 사자"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앙겔로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나 모두"앙겔로스"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 정확히 일곱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에 인침 받은 환란 날의 종들이요 곧 계시록 7장의 14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 피조물의 사람들처럼 앉아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오른편, 왼편이 없습니다.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영광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금촛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이미 주님이 100% 이기고 승리한 것이며 전부 영광된 것이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주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승리에 승리를 계속 더해 가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의 일곱 별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분이 알아서 승리와 영광을 더해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로서 쓰여질 때 주님의 뜻에 조금도 거스르는 것이 없이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 오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을 받은 그대로 저의 입에서도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증거 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칼이 아닌 뭉뚝한 칼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 1:1의"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하신 첫 말씀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왔습니다. 대문자인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예표적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은 막 2:2의 도(道)를 전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진 상태가"헛되고 헛되다."입니다. 이것이 날카로운 칼입니다.

첫 순교자 아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졌고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욥도 텅 비어 있는 자였습니다. 욥이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맞고, 불타지고, 큰 바람이 불어 닥쳐서 모든 자녀와 재산과 종들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욥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텅 빈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금촛대 교회의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카로운 칼을 받은 대로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날카로운 칼이 나가야 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므로 그 칼에 닿는 자들마다 베어지는 것입니다. 또 양날 가진 칼이 되므로 좌우로 베어져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8)

제1장「사도영성」에 대한 이해



홍항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지난호 이어서〉

즉, 일반영성이 일반적으로 수평적이요, 인본주의적인 데 반하여 '사도영성'은 '수평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 영성'이라는 데 그 독특성이 있다. 개신교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좀더 현상적이며 동적이며,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인간의 영성이 존재의 신비와 만나는 체험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그 체험은 인간에 대한 부정, 심판, 죽음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긍정, 부활, 생명, 재생, 재창조, 충만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성례를 거쳐가는 기독교인의 정당한 소산이 된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성구조를 살펴보면 영성은 인간 생명의 다원적 측면을 총괄하고, 통전하는 최고 상태의 전 인간적 내면의 '혼'이기에 육체적·심리적 정신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영적 차원은 생리적·심리적·정신적 차원에서는 모두 해명이 안 되는 차원이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요소가 있다.

인간의 영성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실재'로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활성화되는 것이며, 영적 체험은 계시 체험이며 인간구원의 체험이므로 인간생명이 통일되고 치유되는 자기 충만의 체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영성'의 신학적 근거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는가'하는 성경말씀에 있다.

영성의 심리적 근거는 '개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영성은 신학적·심리적 근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성삼위에 이르는 영성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성생활의 생명적 원리인 창조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도영성'을 영적 삶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이다."영성은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과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삶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영성'은 일반영성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초월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도영성의 기초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고 피조물과 관계한다. 둘째, 영성을 삶으로 이해한다. 사도영성은 인간의 내면의 자질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함께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포괄하는 것이다.

셋째, 사도영성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닮아 가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도영성'을 정의하고자 한다."기독교 영성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인격적인 사귐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변혁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 성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구원과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삶의 변화를 힘들게 하는 문화와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 대로 삶을 살게 된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길이요 생명 되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게 하신다.

〈다음호에 계속〉

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3)

일본은 독도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다. 일본은 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영태 당시 외무부 장관의 '아측구술서(我側口述書)'라는 제목으로 3장의 영문에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이 구상서는 이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독도에 대한 어제 오늘 정해진 게 아니다."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면서도 시종일관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이 왜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으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를 근거로 변장관은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다.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부전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고, 이 문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와 함께 발표된 성명은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대응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키로 한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가 됐다고 한다.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 한다. 살아있는 아기의 주인은 하나이며 자신의 아기가 아닌 여인은 져야 본전이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눠 반씩 나누라 하니 산 아이의 어미가 견디지 못하고 우선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한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로 판결하게 된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솔로몬이 없다.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나라를 짓밟은 일로 20세기 최악의 잊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범주에 포함시켜야 마땅한데 전범으로 독일 히틀러는 자살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처형됐지만, 히로히토는 살려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본지 논설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대한노회 2015 하계수련회 공고

■ 주제 : 주 재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 기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회 계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 노회 수련회 특별강사 : 노회장 장한국 목사
· 일정 : 주후 2015년 8월17일(월) ~ 19일(수) /2박3일
· 대상 : 노회원 부부동반 및 교단 목회자, 중국 목회자
· 회비 : 개인별 · 5만원
· 장소 : 강원숲체험장(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 복장 및 휴대품 : 간편복, 세면도구, 성경/찬송, 필기구
· 전화 : 033) 243-5340 노회서기 : 010-9621-9627

· 교통편 : 승합차 : 대기 8월 17일(월) 오전 9시30분까지 주사랑교회(노회장 장한국 목사시무)에 집결
· 승용차 : 서울에서 경춘 고속도로를 경유, 춘천시내를 지나 화천방면으로 5번국도로 직진 춘천댐이 나옴, 춘천댐에서 화천방향 2.5km를 지나 오월교(다리)를 건너지 않고 좌측에 옛날 다리를 지나 오월리 방면으로 강을 끼고 1.5km 직진하여 아름다운모텔 앞에(강원숲체험장 안내표지판 있음)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1km직진하면 됩니다.

대한노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흐 5층)
홈페이지 : HTTP://JICN.KR ☎ : 031)424-7612, H.P 010-4436-7060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경: 잠언 31장 30~31절 찬양: 찬송가 182장

현숙한 여인의 참 가지는 외적 매력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장의 교훈은 첫 장의 7절과 동일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선다면 가정이 바뀌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열방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시편 1편 1절 찬양: 찬송가 520장

본절은 시편의 첫 시작으로써 복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 복은 번영하다 올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번영하고 올바른 사람인 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 서 있어야 할 줄 알며 분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복을 이미 받은 자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목: 즐거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 시편 1편 2절 찬양: 찬송가 585장

앞절에 이어 복 있는 의인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본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삶의 방향을 삼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 삶을 조명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열매맺는 삶
성경: 시편 1편 3절 찬양: 찬송가 428장

의인의 복 있는 상태를 비유로써 말하고 있는 본절입니다. 시내에 심은 나무가 생수를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공급받게 되며 나의 노력이 아닌 때와 시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사는 것, 보는 것 어떠한 행위 세세한 것 까지도 내 뜻과 계획으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이 순간마다 내게 베풀어주시는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렇지 아니함이여
성경: 시편 1편 4절 찬양: 찬송가 88장

본절은 앞 구절들과는 대조적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악인들의 실패 및 불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겨가 성경 속 상징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들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되어져 왔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살아 갈 것이지만 악인은 겨와 같이 쉽게 날아가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미귀의 장난에 흔들려 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이 세상을 배짱 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복인과 악인 그 결국은
성경: 시편 1편 5절 찬양: 찬송가 373장

그 누구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심판 너머에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땅이 전부인줄 알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는 당장 죽음 앞에서의 심판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넉넉히 이기는 삶,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목: 인정받는 길
성경: 시편 1편 6절 찬양: 찬송가 529장

두 가지의 길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며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과 그 삶은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곧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의 걸음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지만 악인 된 모습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고 복된 걸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어찌하여
성경: 시편 2편 1절 찬양: 찬송가 359장

열방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사람들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며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선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이 싸움을 이기는 비법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싸움에 승리하셔서 주님 만날 때 칭찬 받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적자들은
성경: 시편 2편 2절 찬양: 찬송가 262장

본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였던 대적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과 모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임입니까? 내가 속한 모임이 거룩한 모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그의 다스림 가운데로
성경: 시편 2편 3절 찬양: 찬송가 452장

맨 것과 결박이 의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육적인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과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가 복이고 그 삶이 기쁨이요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갈망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성경: 시편 2편 4절 찬양: 찬송가 546장

앞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라고 표현하였다. 인간이 제아무리 지혜와 술수를 쓴다 한 듯 하나님 눈에는 극히 어리석음의 극치 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는 곳이 없고 그분이 다스림을 멈추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 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실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목: 하나님의 노가 발할 때
성경: 시편 2편 5절 찬양: 찬송가 311장

하나님께서 선포만 하셨더라도 그 선포는 이방의 왕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꾀를 도모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손길에도 인간은 감사로 받는 자가 있는가하면 그 노를 발하는 손길에 벌벌 떠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일하도록 내어드립시다. 내가 혹여 하나님의 노를 발하는 손길로 인하여 엎드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이 세우신 왕
성경: 시편 2편 6절 찬양: 찬송가 259장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을 자신이 세웠다고 주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조인 다윗 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일꾼은 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아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워진 리더와 일꾼을 위한 기도와 협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칼럼

여름더위와 효과적인 휴가

여름은 더위와 싸워야한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과 있는 여름이 될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다. 엘리야는 겁나는 것도 없었고 불가능도 없었다. 기분도 감정도 기력도 사역의 효과도 최상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다. 얼마전 불굴의 용사처럼 당당했었던 엘리야는 금세 패잔병처럼 쓰러져있다. 일어날 기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엘리야 자신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엘리야는 자신도 용납할 수없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천국과 지옥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었을 것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영적상태는 맹수를 맨손으로 때려눕혔던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바퀴벌레를 보고 기절한 것과 같을 것이다. 특히 일이나 은사적인 면에서는 천국이지만 정작 자신은 지옥과 같은 답답한 괴리감에 시달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주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한 시즌을 보내기도 한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답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다.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과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해결이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안 되며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종종 그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로뎀나무 아래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남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갈멜산이 아닌 로뎀나무 아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로뎀나무가 아닌 갈멜산부터 찾아 헤맨다. 그 곳에서만 영광을 받으며 인기를 누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을 통하여 황급히 몰아내신다. 우리가 수양할 곳은 로뎀나무 아래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로 몰아 부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갈멜산의 영광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날마다 갈멜산의 영광과 이적만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교만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만다. 주님의 일은 내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우린 그저 심부름꾼(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자랑하겠는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여름에 로뎀나무 아래로 초청하신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비로소 깨닫는다. "아하! 갈멜산의 영광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그분의 섭리였구나!" 나는 주님께서 능력을 단 한 방울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기억하자. 여리고성을 함락 시킨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기억하자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 물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영광 후에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꾼의 자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철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언부협/수석상임총재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산교회(신승종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름특강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새계명교회(치영아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신미디어예배
7-9 벧엘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연수원특강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판일장로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6-20 창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서광교회 (김창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장로교회
17 한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임예제 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014년 4월
7-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22 정기노회
26-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14 나눔애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벧엘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7-10 예댄교회(양화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희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6 한얼산기도운(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28 천문기원을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5-17 성산교회(유경춘목사)
22 은혜성결교회(정순출목사)
22-25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6-8 천호성결교회(여성심목사)
12 성문교회(이종래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진주기도원(김진홍원장)
20-23 인천서흥교회(강규석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7-27 예댄교회(이일종목사)

2014년 11월
3-6 여수서광교회(배영길 목사)
10-14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7-19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 목사)

2014년 12월
1-3 성은교회
7-10 김종복 목사 초청 성막세미나(예복교회)
8 경기북노회연합성회
15-19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31 신년축복을 위한 산상기도

2015년 1월
2 한얼산기도원철야(이영금 원장)
4 안양광은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풍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5-28 답십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봄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욱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명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갈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회, 하기수련회 개최

교계 기자 70여명 참석 … 교계 언론인 사명 고취

한국 기독교 언론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회(회장 유달상 국장)의 하기수련회가 지난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고취하여, 한국교회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부회장 홍순현 국장(기독교뉴스)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는 이병왕 국장(뉴스앤넷)의 대표기도 후 7·7 회초리대성회 준비위원장이었던 김진옥 목사(지구촌교회)가 '슬픔의 사람(사 53:2-4)'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옥 목사는"우리는 만사형통을 좋아하고, 세상은 약한 자를 밟고 이용한다"며 "하지만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다르다.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연한 순의 모습으로 내려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땅의 사람들은 억세고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하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며 "약하고 순해야 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진다"고 했다.

김 목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계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됨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가 크다고, 부자였다고 상 주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낮아지고자, 섬기고자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러분들의 기사는 주의 종들이 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한 신조를 갖고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사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 기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란다" 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뜨거운 가슴들이 채워져,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멋진 사역을 통해 천국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도한다"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축사를 전한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총회 한은수 감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결단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서도 그 안에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살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감독은 "저희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필력으로 영혼들을 비롯해 목회자들을 살아 있게 하는 귀한 분들"이라며 "여러분과 저희들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늘 씨앗, 하늘 일꾼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제2부 순서로는 협회 임원진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과 연합기관 및 주요 교단의 최근 정세에 대한 집중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국경목총회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총회장 선출 결렬, 오는 12월까지 상임회장이 총회장 대행키로

총무 홍항표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총회장 김진수 목사의 환영사, 박양우 목사(대전경찰청실장)의 기도, 양미상 목사는 빌2:5~10절을 봉독하고, 우슬초 박영숙 목사가 특송을,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수 총회장은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겸손해야 된다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는 겸손의 극치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약 4: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는 말씀처럼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신다고 했다.



이어 헌금기도를 부회장 조규성 목사,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회장 김진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총무 홍항표 목사가 광고를, 김진수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국경목총회(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제38차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허 식 목사는 임원선거에 관해 한국경목총회 정관과 규칙을 부연설명하고 10분간의 정회를 갖고 신임 총회장과 임원선출을 위해 조각에 들어간 결과 총회장 후보의 발전을 위하여 부회장 남기덕 목사, 3.전국경목원들과 사업을 위하여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등이 기도를, 부회장 김창룡 목사가 축사했다.



이어서 필리핀 김영호 선교사 부부에게 총회장 김진수 목사가 공로패를, 증경총회장 허 식 목사는 이임하는 총회장 박동호 목사, 2.강신명 경찰청장 기금 미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허 식 목사는 고심 끝에 내린 결과는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임시동안 상임총회장에 허 식 목사를 추대하고, 임원 23명과 다섯 분의 고문을 세우고 한국경목총회의 정상업무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전 총회장 김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와 회장단은 경찰청장 강신명 치안총감에게 총회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예장합동보수 2015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 개최

2015 총회 수양회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지난달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토비스콘도에서 3일간"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아래 총회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를 개최하고 총회발전과 각 노회,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 등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첫날 하계수양회는 오후 5시부터 접수를 받고 저녁 8시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의 기도, 총회임원의 특송,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사60:1절을 주제로"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규필 총회장은 먼저 환영사 및 인사를 통해서"전도, 부흥, 목회가 열악한 때임을 지적하면서,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지금처럼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향락에 도취되었으며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으며, 재판관들은 그릇 되게 행함으로 약자들의 혼을 더 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서 각종 우상숭배에 몰입하고 있을 때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 타락의 길로 곤두박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타락을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 강한 책망과 권면으로 다가갔다. 사 1:2~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썩어 있을 때, 사 1장에서 39장까지 그들의 죄값으로 바빌론에 의하여 망한다는 계속된 경고였다. 그리고 40장~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들의 목회도 희망의 목회를 가져야 한다. 즉 소망,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갖자면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자고 했다. 목회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줄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총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내는 총회,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는 역사,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회회계 송인섭 장로가 헌금기도를, 증경총회장 윤석칠 목사의 축시,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김영국 목사(호남노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상대 목사(대구노회 증경노회장),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민경임 목사(서경노회 부노회장),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이동철 목사(호남노회 서기), 노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철복 목사(대구노회 서기), 수양회와 특별교육을 위하여 장수천 목사(대구노회)의 특별기도회가 이어졌다.

또한 합동보수 이규필 총회장은 7일 새벽기도회를 갖고 낮 시간에는 각 노회별 단합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저녁에는 정호석 목사(경남증경노회장)의 인도와 유기순 목사(경남노회 서기)의 기도, 특별강사 윤석칠 증경총회장의 인도로 특별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합동보수총회는 2015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가 8일 새벽 6시 폐회예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폐회예배는 대회서기 김관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가 기도를,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계2:8~11절을 중심으로 "실상은 네가 부자니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가 폐회를 선포하고,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후 한중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예장합동보수 총회 2015년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를 마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섬기는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본사 언론부흥사협의회 수련회 및 부흥사연구교육 공고



- 일시 : 8월 31일(월) ~ 9월 1일(화)
- 장소 :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1차 모임...
- 회비 : 1인 50,000원
  본사계좌 신한은행 / 110-003-518810입니다. (예금주 정기남)
- 주간 :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 주최 : 언론부흥사협의회
- 후원 : 영광교회, 예복교회, 주사랑교회, 삼성중앙교회, 예장에녹총회,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그 외 다수...

※참고 : 출발 교통편은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언론부흥사협의회는 국내외의 부흥선교에 뜻을 같이할 분들을 부흥사로 모시며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전국 교회 주일예배 안내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10-7474-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철야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토교회



담임 서상운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 오전 11시00
수요밤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밤예배 : 오후 8시00
새벽 예배 : 새벽 5시00
주일성경공부 : 오후 3시00

인천 연수구 용담로125번길 41(메카리움오피스텔 3층)
☎(032) 811-6896, 010-8838-6896 http://www.nakto.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항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시도영성신학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엄신형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주일예배안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호장)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담임 정대성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 밤 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7시30분
새 벽 예 배 새벽 6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화정농협5층)
☎ 031)974-7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슬초)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곽순종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이길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버시티 2단지 옆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3부 오후 1시
주일 밤 오후 6시3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휘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성경공부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담임 황원찬 목사

2015표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교회(02)461-597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곽영민 목사

◈ 예장(에녹)총회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사장,언부협사무총장)

인천시 남구 능해길5(숭의1동)
☎032)891-0651, 010-2080-0651





산성그리스도의교회 창립 25주년 및 권사취임예배

최낙현 목사 정동진희망원 설립 6주년기념



산성그리스도의교회창립 25주년 및 정동진희망원 6주년을 맞은 최낙현 목사는 지난 7월 21일(화) 오전 11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 소재 본당에서 교회창립 기념일과 희망원 6주년을 맞아 권사취임을 겸한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최낙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최지현 전도사의 감사연주찬양과 명지대학교 선교무용단의 아름다운 몸찬양에 이어 강요셉 목사(복받는 교회)가 기도를, 곽동훈 목사(행복의집 원장/대신석수총회 부총회장)는 딤후 2:5~10절을 인용"좋은 일꾼이 되자"는 말씀으로 설교했다.

곽 목사는"주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1)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직분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했다. 2)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라고 했다. 3) 주님께 인정받는 종은 지혜롭게 행하는 종이라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교회, 지혜롭게 행하는 종들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를 기원했다. 4)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직분자요 성도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낙현 목사는 2부 임직서약을 갖고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임직기도를 하고, 나영숙 집사를 본 교회에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권사임직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윤정 원장의 축사 및 권면을 하였으며, 최지현 전도사의 축하 연주와 나영숙 권사의 인사, 최낙현 담임목사의 인사 및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 전주섭 목사(병산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25주년을 맞이한 산성그리스도의 교회는 1990년 7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이윤정 원장, 전주섭 목사 외 다수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제1대 목회자로 이용범 목사, 제2대는 최낙현 목사가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2004년 1월 29일 새성전 입당 및 권사취임(3인)을 가졌다. 그 후 2009년 6월 30일 정동진희망원을 개원하고, 2011년 7월 11일 정동진희망원 II 개원(현 강릉솔향의집)했다. 따라서 최낙현 목사는 지난 7월 21일 산성그리스도의교회 창립 25주년, 정동진희망원 6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동시에 나영숙 성도를 권사로 임직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는 담임목사의 목양일념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을 믿고 있다.





벧엘교회 설립11주년 및 임직예배 드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벧엘교회(강정자 목사)는 지난 7월 26일 주일오후 5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소재에서 설립11주년기념을 맞이하여 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벧엘교회 담임 강정자 목사의 인도로 설립11주년을 기념하여 1부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기도에 장선진 목사, 성경봉독(딤전 3:8~13절)을 박정숙 목사, 특송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일동, 헌금송에 이지우, 이유림 자매가 나섰다.

노회장 곽순종 목사는"귀하게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1.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담임목사를 도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되고, 2. 주님께 쓰임 받는 종은 세상을 멀리하라, 3.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4.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앞과 담임목사,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라, 5.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집사가 되라, 6.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 안에 속한 자, 충성하는 직분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을 직시하고 기원했다.

이어 담임 강정자 목사의 집례로 임직 서약을 갖고, 노회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가 있은 후 악수례에 이어 강정자 목사는 신현철 씨를 본 교회의 안수집사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임직패수여와 본교회의 성도일동이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어 노회서기 백운성 목사는 임직자와 교우들을 향해 권면 및 축사를, 임직자 신현철 집사가 답사를 했다. 아울러 담임 강정자 목사의 이나 및 광고가 있은 후 노회장 곽순종 목사의 축도로 벧엘교회 설립1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마쳤다.





2015 2학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안내



총장 황원찬 박사

본교는 말씀과 삶을 통합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역들을 모집합니다.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월요특성화반	월요일, 전일제 수업	3년 00명
			주간: 화수목, 야간: 월화목		3년 00명
	사회복지(M.A.)		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2년 00명
	상담심리학(M.A.)		상담심리치료전공		2년 00명
신학석사(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2년 00명
박사과정	목회신학박사(D.Min.)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3년 0명
	철학박사(Ph.D.)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학		3년 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전공		3년 0명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학 전공		3년 0명
편입생	석사		목회학, 신학		2, 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ep.) 및 신학석사(Th. M.)과정		00명

※ 특성화 반은 주1일 수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

(특집) 靑松 건강칼럼



補陽食 삼계탕(蔘鷄湯)과 초계탕(醋鷄湯)

박 명 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우리 조상(祖上)은 한 해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삼복(三伏)을 꼽았다. 삼복은 음력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세 번의 절기인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을 통틀어 말한다. 금년 초복은 7월 13일, 중복은 7월 23일, 그리고 말복은 8월 12일이다. 말복 전인 8월 8일이 가을을 알리는 입추(立秋)이다.

복날의 복(伏)자는 '엎드리다' 또는 '굴복하다' 는 뜻이다. 중국 후한(後漢)의 학자 유희가 지은 '석명' 이라는 책의 기록에 따르면 복날은 오행설(五行說)에 따라 가을 기운이 땅으로 기어 나오려다 이직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강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했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한의학(韓醫學)에서 보는 補陽食 삼계탕(蔘鷄湯)

한의학(韓醫學)에서는 날씨가 무더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몸속이 차가워진다고 본다. 이에 삼복더위에 덥다고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 안은 더욱 차가워져 위장과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따뜻한 음식으로 차가워진 속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옛날 사람들은 복날에 바닷가 모래밭에서 뜨거운 모래에 몸을 푹 파묻고 모래찜질을 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더위를 물리쳤다. 우리 조상은 팥죽을 '복죽' 이라고 불렀으며, 삼복더위에 팥죽을 쑤어 즐겨 먹었다. 특히 팥의 붉은 색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색깔이라 여겨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와 함께 스며드는 나쁜 기운을 쫓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복날에 즐겨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犬)를 잡아 통째로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개장국' 이다. 복날에 개장국을 먹고 땀을 흘리면 더위를 잊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여 병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개장국 대신에 '계삼탕(鷄蔘湯)' 을 즐겨 먹기도 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삼계탕(蔘鷄湯)이다. 서울의 삼계탕 전문식당에서는 지난 초복 날 손님들이 많이 몰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뜨거운 삼계탕을 맛보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 소재 '한국의 집' 에서 보양식(補陽食)을 많이 찾는 초복(7월 13일)을 앞두고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집 페이스북 이용자 20대부터 50대까지 총 562명을 대상으로 보양식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세대가 '보양식하면 떠오르는 음식' 으로 삼계탕(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장어구이(11%)와 보신탕(4%)이 그 뒤를 이었다.

'보양식을 자주 챙겨 먹는가' 의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62%가 '챙겨 먹는 편이다' 라 응답했다. 특히 중장년층인 4050세대는 70%, 청년층인 2030세대도 58%가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고 답했다. 보양식을 먹는 시기는 76%가 '여름' 을 꼽았다.

병아리보다 조금 큰 닭인 연계(軟鷄·영계)를 백숙으로 푹 곤 것을 '연계백숙(白熟)' 이라 하며, 여기에 인삼을 넣어 '계삼탕' 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삼계탕' 으로 굳어졌다. 계삼탕이 '삼계탕' 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인삼이 대중화되고 외국인들이 인삼의 효능을 인정하게 되자 삼(蔘)을 강조하여 위로 놓은 것이다.

삼계탕은 어린 닭의 뱃속에 찹쌀, 마늘, 대추, 인삼 등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여름철 보신 음식이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며, 인삼(人蔘) 역시 열이 많은 약재이므로 이들을 함께 넣고 끓여 먹으면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이 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황색의 암탉은 성평(性平)하고 소갈(消渴)을 다스리며, 오장을 보익하고 정(精)을 보할 뿐만 아니라 양기를 돕고 소장을 따뜻하게 한다.", "인삼은 성온(性溫)하고 오장의 부족을 주치하며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허손(虛損)을 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축(六畜) 중의 하나인 닭을 귀물로 여겨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육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으로 소·말·양·돼지·개·닭을 말한다.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연한 것이 특징이며, 쇠고기처럼 지방이 근육 속에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되는 산성식품이다.

닭고기는 쇠고기·돼지고기·개고기보다 단백가(蛋白價)와 아미노산가(價)가 훨씬 높다.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으며, 또한 소화흡수율이 높은 우수식품이다. 생후 백일 전후는 수탉이 고기 맛이 좋으나, 성장하면 암탉의 고기 맛이 더 좋다.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 조직이 연하고, 자극성이 적어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환자를 위한 식품으로 적당하다.

서양에서는 닭고기를 치킨(chicke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을 낳기 전의 병아리를 뜻한다. 어린 닭은 껍질이 연하고 맛이 좋다. 닭고기는 독특한 냄새가 나므로 조리할 때 마늘, 파, 향신료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냄새를 없을 수 있다. 닭고기는 육식을 즐기는 서양인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담백한 맛을 찾기 때문이다.

닭고기만큼 요리법이 다양한 육류는 드물다. 예를 들면, 삶은 닭고기를 차게 식힌 다음 마요네즈 소스를 듬뿍 친 채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것이 콜드 치킨이다. 이것은 닭고기를 실처럼 찢어서 샐러드에 이용하기도 하는 한국식 닭고기 냉채와 유사하다.

닭은 기원전 3천 년경부터 가금(家禽)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였으며, 한때 신(神)으로 까지 취급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닭은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기원전 500년경에 그리스에 전파되었다.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닭의 품종개량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건국신화에 닭이 나온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김알지(金閼知)에 "신라왕이 어느 날 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숲 속을 찾아보니 금색의 작은 궤짝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 속에 아기가 있었기에 왕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알지(閼知)라 하고 금궤짝에서 나왔다하여 김씨성(金氏姓)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 숲을 계림(鷄林)이란 이름을 붙였고 신라의 국호로 삼았다.

신라의 계림신화를 살펴보면,

옛날 우리나라는 닭을 신성시하여, 서계(瑞鷄)로 여겼다. 우리나라 토종닭은 서양닭 보다 영리하고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시간을 알리는 보신용(報晨用)으로 사용되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약용에는 조선닭이 좋아 중국인들이 조선에 가서 닭을 구해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삼(人蔘)은 오가과(五加科)에 속하는 다년초(多年草)이다. 인삼을 조제에 따라 밭에서 채취한 생것을 수삼(水蔘, Fresh ginseng), 수삼의 잔뿌리와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을 백삼(白蔘, White ginseng)이라 한다. 홍삼(紅蔘, Red ginseng)은 6년근 수삼을 엄선하여 껍질채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을 띠는 인삼이다. 삼계탕에 넣는 인삼은 수삼을 사용한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인삼의 약효로 오장을 보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여 수명이 길어진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삼의 약효에는 항암(抗癌), 궤양, 심부전, 스트레스, 피로, 우울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빈혈증, 당뇨병 등에 유효하다. 인삼의 신비한 약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약용과 건강식품으로 가장 우수한 인삼은 우리나라 고려인삼(高麗人蔘)이다.

삼계탕과 더불어 복날에 먹는 보양식으로 초계탕(醋鷄湯)이 있다.

'초계탕' 을 낱말로 풀어보면 초(식초), 계(겨자의 평안도 방언), 탕(육수)으로 오이초절임과 겨자채무침에다 육수를 부었다는 뜻이다. 초계탕은 예로부터 궁중(宮中)요리로 알려졌으며, 궁중이나 양반가(兩班家)에서 특별한 날이나 더운 여름에 서빙고(西氷庫)나 동빙고(東氷庫) 등에서 얼음을 꺼내 차게 해서 먹었다고 한다.

초계탕은 삶은 닭고기에 여러 가지 채소, 식초, 겨자 등을 넣고 기름기와 냄새를 제거하여 매우 차고 담백하게 만든 음식이다. 찬 음식에 식초(食醋)를 사용하는 것은 살균력을 높이고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북돋아 주는데 효과적이며, 겨자(芥子, mustard)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낸 것은 겨자가 열(熱)이 있어 찬 음식에 좋기 때문이다. 초계탕을 시원한 물김치와 고소한 메밀부침을 함께 곁들어 먹으면 그 맛이 절묘하게 잘 어우러진다.

초계탕은 조선시대 궁중연회를 기술한 '진연의궤' 등에 이름이 올라 있는 귀한 음식이다. 정조의 어머니이며 사도세자의 비(妃)였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回甲)잔치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에도 초계탕이 언급되어 있다. 일반 기록에는 명월관(明月館) 등을 통해 궁중의 음식이 민간에 흘러나오던 1930년대 이석만의 간편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쯤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궁중에서 만들었던 초계탕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초계탕은 재료나 조리방법이 약간 변형된 것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 초리골에서 초계탕 식당을 5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수('보양식 닭요리 & 건강식 초계탕' 공동저자) 사장은 옛것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초계탕을 조리하고 있다.

초계탕(4인분) 재료는 다음과 같다. 닭 1마리(약 1.3kg), 오이 2개, 파 1개, 양파 1개, 고추 2-3개, 샐러리 1줄기, 붉은 양배추 30g, 식초 1큰술, 겨자 1큰술, 설탕 1큰술, 사과즙 1큰술, 배즙 1큰술, 레몬즙 1큰술, 술(소주) 1/2큰술, 후추, 잣. 닭은 6개월쯤 된 것을 잔털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핏물과 기름기 냄새를 제거한 후 삶는다. 삶은 닭을 뼈와 살을 발라내면서 기름기가 남아 있으면 기름기를 닦아서 제거한다. 닭고기를 냉장고에 넣어 24시간 정도 저온숙성(低溫熟成) 시킨다.

식초, 겨자, 설탕, 술(소주), 잘게 썬 파, 얇게 썬 양파, 후추 등에 육수를 조금 넣고 잘 저어준 후 오이와 닭고기를 넣고 버무려준다. 물김치 국물 또는 동치미국물을 조금 넣고, 육수로 얼린 얼음을 몇 개 올려놓는다. 배즙과 사과즙을 살짝 뿌리고, 잣을 고명으로 위에 올리고 레몬즙을 뿌려주면 시원한 초계탕이 완성된다.

초계탕의 닭고기와 채소를 다 먹을 때쯤 차게 한 메밀면을 넣고 식성에 따라 양념(식초와 겨자)을 더 넣어 먹으면 맛이 있다. 한편 찬 음식을 먹어서 몸의 내부가 냉(冷)해진 상태이므로 따끈한 육수나 면수(국수 삶은 물)를 마셔서 속을 편하게 해주면 위장(胃臟)건강에 도움이 된다.

세월호와 함께 국가가 붉은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만원 박사

'아문법' 을 아십니까? 공식 명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광주를 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데 5조8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라는 법입니다. 광주를 온통 김대중의 치적물로 채우고 김대중을 신격화 하는데 국민세금 5조8천억원을 배정하라는 법입니다.

때문에 이 요상한 법을 놓고 세간에서는 '아시아문화궁전법' 이라 부릅니다. 이 세간의 명칭이 더욱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명칭일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파동을 이용해 유승민-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여야 빨갱이 의원들이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언론들도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한마디로 광주를 북한의 금수산궁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광주를 금수산궁전처럼 절대 성역화하고, 김대중을 김일성과 동격으로 만들어 놓은 후, 1980년 이후 줄곧 남북한을 장악한 5.18 세력이 남한 국회를 장악하는 대로 '적화통일법' 을 이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통과 시키겠다는 책략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99%,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합법적으로 날치기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국민을 일깨워야 합니다. 먼저 알리는 것만이 우리 국민이 살길이요 가장 큰 총알입니다. 빨리 서둘러야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널리 알려야만, 그나마 국민이 애국심으로 뭉쳐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김대중을 부관참시 해야만 이 법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광수만이 희망입니다. 빨리 빨리요.

글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JTNTV방송 언론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 영광교회 찾아오시는 길



·부 목 사 : 이주홍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심방전도사 : 원명숙
·교육전도사 : 이민규
·전 도 사 : 양승숙
·성가 대장 : 심재헌
·지 휘 : 박성진, 왕소정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철야 예배 밤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3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6:3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7: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서상운 목사, 낙토교회 이전감사예배 드려

나의 부름이 모두 마칠 때까지 영혼구원을 위하여 진력할 터



낙토교회 서상운 목사는 7월18일(토)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용담로 소재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장로가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성전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춘우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정재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기도를, 최수영 목사는 성경봉독(딤전3:15)을, 주안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는"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낙토교회의 이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많은 고생 끝에 지하에서 6-7년 만에 햇빛을 보는 지상으로 교회를 옮겨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된 서상운 목사 내외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설교를 통해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박하슬 찬양사역자는 헌금 찬양으로 사모곡을 불렀으며 노병주 목사(은성교회)가 봉헌기도를 차준철 목사(생수감리교회)의 축복기도, 서명섭 목사(인기총증경총회장/인천시조찬기도회장), 김기복 목사(인천침례교회/인기총증경회장), 신덕수 목사(인기총증경회장/한일순복음교회)가 격려사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장로, 박남선 목사(베데스타교회)가 축사를 하고, 찬양사역자 박찬미의 축하 찬양이 있었다.

이날 서상운 목사의 내빈소개 및 인사와 광고가 있은 후 김태경 목사(성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아울러 박무평 목사의 식사기도로 정담을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이어졌다.



낙토교회 서상운 목사는"생명이신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이 비천한 그리스도의 종 영혼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탈출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됨을 증거 하기에 필리핀, 중국, 러시아, 등등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증인으로 선교를 하게하시고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큰 복으로 베풀어주신 성경가르침으로 마28:18~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영계) 땅(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인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명령에 순종으로 성경을 100번 이상 상고한 나 영혼은 하나님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역사내주교통하심으로 2007년 8월 11일 청학동 491-7번지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 렘3:9절에"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렘12: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훼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또한 시104:24~25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청종해야 산다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 하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대로 예수 안에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으로 알고 오직 성경 가르치기에 이르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관재와 같이 나의 부름이 모두 마칠 때까지 성경가르침으로 장소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아버지께 무한감사와 그 아들 인자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이 내게 주신 내 영혼이 말씀으로 한영혼 한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이 소망인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낙토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에 함께하신 선후배 목사님들과 동료분들과 낙토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늘(영계)에 성스러운 복과 이 땅(물질계)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 예수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피종진 목사 8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3(월)~ 6(목)	강화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2)937-9724
3(월)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진철 목사)	☎(02)555-0712
6(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7(금) 오후	대전 충신평생교육원(원장 한영동 목사)	☎(042)634-8301
10(월) 오전	대전 평강교회(이하중 목사)	☎ 010-9195-9592
10(월)~11(화)	대구 글로벌하나님의병원(원장 강은숙 목사)	☎ 010-6358-8999
13(목) 오전	일산순복음영신교회(강영선 목사)	☎(031)901-0191
14(금)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 주최 :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총재 고충진 목사)	☎(031)947-0091
14(금) 저녁	남양주 아가페한족기도원(원장 최강애 목사)	☎(031)513-3727
17(월) 저녁	고양 한국은혜교회(권영돈 목사)	☎ 010-9195-9592
18(화) 오전	미리암선교회(회장 박은주 목사)	☎ 010-4737-0691
19(수) 오후	서울 모리아교회(윤요셉 목사)	☎ 010-8966-1180
20(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 주최 : 연세대학교총동문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031)947-0091
21(금) 오후	드림선교회(임수정 장로)	☎ 010-5050-3422 장소가 독교연합회관
21(금) 철야	천안 임마누엘교회(이규철 목사)	☎ 010-3428-9182
24(월)~26(수)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담임 고충관 목사)	☎(043)853-3990
27(목) 오후	양주 실로암기도원(원장 고화순 목사)	☎ 010-6223-0613
31(월)~9.2(수)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51)322-5707

지저스타임즈 7월 이사회 및 기도회 가져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 복 빌어주는 언론사가 되자



C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는 7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삼성중앙교회(담임목사 정대성)에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월례회를 열고 합심하여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등불교회 / 예장에녹총회 총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부이사장 및 실무총재)의 기도, 백운성 목사(임마누엘교회/안산지사장 및 실무회장)가 성경(시109:17-18)을 봉독하고, 꾸미우리 기독무용단과 장혜영 집사(찬양사역자)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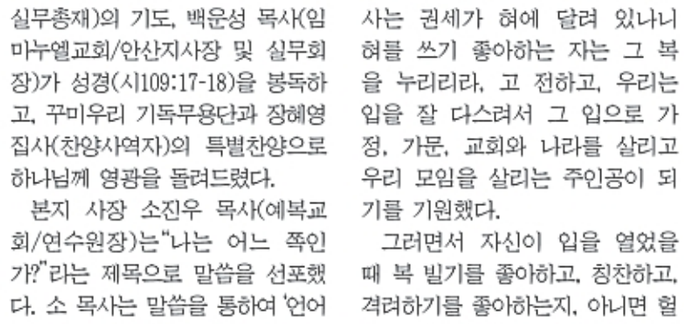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에복교회/연수원장)는"나는 어느 쪽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소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언어구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을 복 빌어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 그 복이 내게서 멀리 떠난다고 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언어구사를 바로 바꾸면 평생 복을 80%는 누리고 산다고 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언론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말 복된 말 외에는 없으며, 복된 소식을 많이 전하자고 했다.

사장 소진우 목사는 성경에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데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복을 품으면 복이 내게 오며,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열매가 되고, 그래서 잠언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리라, 고 전하고,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서 그 입으로 가정, 가문,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우리 모임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을 열었을 때 복 빌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헐뜯고 수군수군하기를 좋아하는지 자신이 어느 쪽이냐의 따라 내게 돌아오는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면서 좋은 쪽으로 훈련하여 좋은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박용숙 목사(주성청각장애인교회/운영이사 및 상임이사)가 문서선교를 위하여 특별헌금찬송을, 임해숙 목사(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운영이사 및 상이회장)의 봉헌기도에 박용숙 목사가 수화로 통역을 하고, 이사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언부협 대표회장), 사장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상임대표)가 각각 인사 및 광고를 했다.



이어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직전 이사장 정기환 목사에게 신문방송 발전에 지대한 공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류기형 목사를 천안지사 기자로 사령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신문방송사 발전을 위하여 최낙현 목사(상임이사/상임회장), 문서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부총재), 해외지사 및 국내 지사를 위하고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사(자문), 삼성중앙교회와 회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류기형 목사(합동개혁총회신학장) 등이 특별기도를 드리고 직전이사장 정기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사회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사회로 상임이사 곽동훈 목사(행복의집/상임이사 및 실무총재)가 회무를 위하여 개회기도를 하고, 안건토의에 들어가 8월 31일~9월1일 1박2일간 언론부흥사협의회 수련회를 정하고 강원도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상임이사 최낙현 목사시무)에서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를 강사로 부흥사 연수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그 외 신문방송 발전과 집기구입을 위하여 의논하고 아울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10월 첫 주간 미국 애틀랜타 퓨어 가스펠장로교회(이규자 목사)에 집회 강사로 출국한다.

낙토 성경 아카데미 1기생 모집



초교파 성경 강해

성경을 알자! 예수를 알자! 인자를 알자!

강 사



서 상 운 목사
낙토교회 담임목사

·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이다.
·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
· 성경을 알아야 영생한다(요 17:3).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부름심을 받으신 목사님, 교사, 복음을 전하는 분
·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갈급한 분
· 성경 전체를 통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낙토 성경아카데미

● 기간 : 2015. 9. 1 ~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 12:30
● 장소 : 인천 연수구 용담로125번길 41 (구.연수구 연수동 539-8) (메카리움오피스텔 3층 낙토교회 본당)
● 인원 : 선착순 50명
● 문의 : ☎ 032) 811-6896, 010-8838-6896

〈신 청 서 식 참 고〉

이 름 :
주 소 :
전화번호 :
소속교회 :
직 분 : 생년월일 :